

1일 Market Index			
코스피	6971.35	코스닥	894.29
(+133.31)		(+38.38)	
금리	4.010	환율	1361.40
(-0.001)		(+8.60)	

트럼프 “韓서 2000억 달러 투자 역사적 에너지 인프라 협력 시작”

대미투자 프로젝트 구체적 윤곽
대형원전 8기에 총 1200억 달러 텍사스에 가스발전소 건설 확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부과에 대응한 한국의 대미투자 프로젝트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냈다. 한국형 원전(APR1400)을 포함한 대형원전 8기를 원전 종주국인 미국 내 건설하는 사업에 가장 많은 투자금이 투입된다. 미국 텍사스주에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전력 공급용 가스복합화력 발전소 건설이 확정됐다.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는 상업적 합리성을 전제로 추진된다. 산업통상부는 1일 한·미 정부 간 ‘한미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에 따른 전략투자 프로젝트 추진계획을 공개했다. 이는 지난해 체결된 3500억 달러 규모의

한·미 무역협정의 및 대미 전략투자 MOU의 후속 조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전날(9월 30일 현지시간) 백악관 오벌오피스에서 외신 브리핑을 열고 “한국이 약속한 20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기금을 통해 텍사스 가스발전소, 8기의 대형 원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등 역사적인 에너지 인프라 협력이 시작된다”고 공식 발표했다. ◆ 한국형 APR1400 2기 美 첫 건설… AP1000보다 ‘우선 착공’ 우선 한국형 원전의 미국 진출이 사실상 확정됐다. ‘프로젝트 파워(Project Power)’로 불리는 한·미 원전 프레임워크에 따라, 양국은 총 1200억 달러(건설비 1000억 달러, 예비비 200억 달러)를 투입해 미국 내에 대형원전 8기(APR1400 2

기, AP1000 6기)를 건설하기로 합의했다. 앞서 미국 정부는 원자력 행정명령을 통해 오는 2030년까지 대형원전 10기 착공을 공식화 한 바 있다. 양국은 원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관련 국내 법상 요건 충족을 전제로 연말까지 100억 달러를 선지급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당초 양국 기업 간 타협협정(SA)에 따라 미국 진출이 막혀있던 한국형 노형 APR1400 2기의 미국 건설이 확정된 것은 의미가 크다. 기술 종주국인 미국에 해외 노형이 건설되는 첫 사례다. 이로써 양국 협약 과정에서 AP1000에 앞서 APR1400 2기를 우선 건설하는 순서를 확보해 한국 원전 기술의 경쟁력을 미국 시장에서 입증하게 됐다. <3면에 계속>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이재용 회장, 영국서 ‘KH컬렉션’ 민간외교 이재용(왼쪽 두번째) 삼성전자 회장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영국 런던 영국박물관에서 열린 ‘KH컬렉션 순회전 갈라 디너’에서 앤 공주(왼쪽 세번째), 조지 오스본(왼쪽) 영국박물관 이사회 의장, 6·25 참전용사들과 대화하고 있다. <관련기사 L6면> /삼성전자

지난달 수출액 1209억 달러 ‘역대 최대’

산업부, 전년대비 84% 급증
올해 누적 수출액 8145억 달러
연간 1조 달러 1855억 달러 남아

지난달 한국 수출이 반도체 등 IT 품목의 압도적인 성장에 힘입어 사상 처음으로 월 수출 1200억 달러를 돌파했다. 무역수지 역시 500억 달러에 육박하는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남은 3개월 간 1855억 달러 이상 수출 시 사상 첫 1조 달러를 기록한다. 1일 산업통상부가 발표한 ‘2026년 9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9월 수출액은 전

년 동월 대비 83.5% 급증한 1209억 4000만 달러(약 160조 원)를 기록했다. 이는 종전 역대 최고치였던 지난 6월(1020억 달러) 기록을 세 달 만에 갈아치운 수치다.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 또한 56억 3000만 달러로 사상 처음 50억 달러를 넘어섰다. 수입은 전년 대비 26.0% 늘어난 710억 9000만 달러를 기록했으며, 이에 따른 무역수지는 498억 5000만 달러(약 66조 원) 흑자로 사상 첫 400억 달러 돌파이자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올해 1~9월 누적 수출액은 8145억 달러

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연간 실적(7093억 달러)을 불과 9개월 만에 가볍게 뛰어넘었다. 이에 따라 올해 한국 수출의 꿈의 고지라 불리는 연간 1조 달러 달성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다. 강감찬 무역투자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근 3개월 추세로 본다면 (수출 1조 달러 달성) 굉장히 유력하고 오히려 그 시점이 언제가 될지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10월부터 두 달 정도 1000억 달러 달성시 11월말이나 12월 초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社告

메트로경제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역노화’ 세상에 없던 혁신기술 조명

메트로경제와 메트로신문이 오는 10월 21일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에서 ‘2026 제약·바이오 포럼’을 개최합니다. 최근 글로벌 제약·바이오 및 헬스케어 시장은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를 차세대 핵심 성장 축으로 설정하고 빠른 변화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세계 첫 역노화 유전자 치료 임상 진입부터 비만·대사 질환 약물의 노화 지연 적응증 확장, mRNA 세포 재프로그래밍, 자기줄기세포 재생의료에 이르기까지 연구 분야가 급격히 다각화되는 추세입니다. 이러한 혁신 기술은 단순한 신약 개발을 넘어 바이오 뷰티, 디지털 헬스케어 기반 예방 의학, 맞춤형 웰니스 영역으로 빠르게 접목되며 산업 간

계계를 허물고 있습니다. 역노화 기술은 저속 노화를 넘어 글로벌 바이오 산업의 가장 뜨거운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세상에 없던 새로운 치료제로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고 있는 K-제약·바이오의 차세대 혁신 기술을 집중 조명합니다. 기존 치료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치료 효과를 극대화하는 국내외 첨단 바이오 기술의 현재와 미래 가능성을 깊이 있게 논의할 예정입니다. 국내외 항노화·역노화 연구개발(R&D) 및 기술 상용화를 선도하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함께하는 이번 포럼에 독자 여러분과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바랍니다.

■ 행사명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 주 제 : 역노화 및 항노화(Reverse Aging & Anti-Aging)

■ 일 시 : 2026년 10월 21일(수) 오후 2~5시

■ 장 소 : 서울 중구 페럼타워 페럼홀

■ 주 최 : 메트로경제, 메트로신문

■ 문 의 : 2026 제약·바이오 포럼 사무국 02)721-9818

■ 이메일 : forum@metroseoul.co.kr

靑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수석 문신학

李 대통령, 고위직 인선안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권대영
국토부 제2차관에 정의경 임명



이재명 대통령이 1일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에 하준경 경제성장수석을 승진 임명했다. 지난달 1일 김용범 전 정책실장이 사의를 표명한 지 한 달 만에 이뤄진 후임 인선이다. 하 정책실장의 이동으로 공석이 된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임명됐다. 성기훈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하준경 신임 정책실장을 포함한 청와대와 정부 고위직 인선안을 발표했다.

하 신임 정책실장은 한국은행 출신 경제학자로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를 지냈으며,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초대 경제성장수석을 맡아 경제정책 기획과 조정 업무를 담당해왔다. 하 정책실장은 공정성장과 양극화 해소 등을 성장 전략에 결합해 온 대표적인 학자로, 이재명 정부 초대 경제수석으로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코리아 프리미엄으로 전환시킨 역량을 보여줬다는 평

가를 받고 있다. 신임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에는 문신학 산업통상부 차관이 발탁됐다. 문 신임 수석은 관료 출신으로 산업부에서 산업에너지 정책 등을 담당해 왔다. 또 이 대통령은 관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재정경제부 제1차관에, 정의경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 제2차관에 각각 임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외교·안보 분야 특별보좌관(특보) 인선도 단행했다. 대통령비서실 평화외교특보엔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국방정책특보엔 김병주 민주당 의원을 각각 위촉했다.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에는 박정현 전 부여군수를 위촉했다. /서예진 기자 syj@



메트로 한줄뉴스



▲李대통령 지지율 직전과 같은 43%…부정평가는 2%p 올라 50% /사진 뉴시스
▲민주당 35%, 국민의힘 25%…민주 4%p ↓, 국힘 동일

▲통일부, 北적반하장 담화에도 “평화공존 흔들림 없이 추진”
▲“추경호 징역 20년 구형” 메가톤급 충격 받은 대구 정치권

▲괴물미사일 ‘현무’, 빛으로 드론잡는 ‘천광’…軍 첨단무기 선배
▲김정은, 中국경절 맞아 시진핑에 축전…“전략적 관계로 발전”